

(주)오토닉스  
**기술 교육관 개관**  
 센서, 제어기기 무상 기술 교육 실시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다음 달 1일 산업 자동화 솔루션 관련 『오토닉스 기술 교육관』을 오픈하고,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주)오토닉스는, 1년여의 준비 끝에 경기도 부천시 테크노파크 내에 위치한 동사 영업본부 내에 기술 교육관을 개관한다.

교육관은 50여평의 공간에 약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제작한 총 10대의 데모킷트 등 실습 기

자재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청각 수업을 위한 프로젝터 및 각종 영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별도의 휴게실을 갖추는 등 수강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기술 교육은 학생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센서, 제어기기, 시스템 부문 등 총 44개 기종으로 구성된 각 부문 대표 제품군의 데모킷트를 이용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오토닉스 기술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및 기술진에 의해 기초 이론부터 제품의 원리 및 기능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실무에서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닉스는 교육관 운영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과를 실질적인 기술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시스



▲ (주)오토닉스 기술 교육관 개관

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동 교육은 1회 20명 정원으로 매월 3회 이상 실시되며, 2월부터 오토닉스 홈페이지(www.autonics.co.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한솔제지(주)  
**청주 백판지공장 철수**  
동종업체 구조조정 예고

한솔제지(주)(대표이사 선우영석)가 지방 사업장 정리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 충북 청주공장이 오는 25일 문을 닫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제지가 청주공장을 철수기로 한 것은 국내 백판지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장은 연산 8만t 규모의 백판지와 라이너지를 생산해왔다.

부지는 1만8천1백76평에 종업원수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약 85명에 달한다. 현재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천안공장으로 귀속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휴자산 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은 지난 90년대 중반 사업확장을 하는 과정에 동창제지를 인수해 청원공장을 백판지 전문공장으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중국 백판지 업계의 급성장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업 변화를 모색해왔다.

한솔제지의 전체 매출 가운데 백판지는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이번 청주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한솔제지의 백판지 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1위인 한솔제지의 구조조정을 신호탄으로 세립제지, 대한필프, 한창제지 등 동종 업체도 다각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업계  
**연초부터 정부조사에 몸살**  
소보원 용기,포장 조사

연초부터 화장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태평양과 LG생활건강, 소망화장품 등 화장품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각 제조사를 방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며 “조사 목적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담당자들도 무슨 사항인지 잘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조사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이 판매량의 주류로 떠오르자 일부 기존 전문점에서 가격과 마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판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업계동정**

봐서 영업과 유통 과정에서 일부 잡음에 대해 긍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회사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도 최근 화장품 안전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보원에서 환경 관련 문제로 용기와 포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정확한 대상 업체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빠르면 이달 말쯤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화장품 업계는 지난해에도 프탈레이트와 관련한 시민 단체의 발표와 일부 천연 화장품 내 방부제 사용 파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신호제지(주)  
**친환경 '환경마크' 획득**  
고인쇄품질 코트지 생산

신호제지(주)(대표이사 김종곤)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인증한 환경마크를 획득, 지난 해 11월 ISO 14001 인증에 이어 거듭 친환경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마크는 제품 생산과정 각 단계별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을 줄인 제품을 선별,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다. 신호제지는 원지 위에 안료를 코팅, 인쇄품질을 높힌 코트지를 통해 이번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ISO 14001 인증을 위해 원료조달에서부터 제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환경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형광증백제 사용을 줄이고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림제지(주)  
**이동운 대표이사, 회장 선임**  
제지사업부문, 이용열 부사장 선임

세림제지(주)(대표이사 이용열)는 이동운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2006년 1월 1일자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세림제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독립 책임경영 체제인 전략사업단위 형태로 각 사업부문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 △ 제지사업부문 대표 이용열 부사장
- △ 석유개발사업부문 대표 한중환 부사장
- △ 환경사업부문 대표 기문봉 전무
- △ 전략기획실장 김현준 전무

환경전시업계  
**환경 교육의 장으로 주목**  
캐니빌리지, 관람객 10만명 돌파

쓰레기가 곧 자원이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환경

관련 전시관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주목(注目)받고 있다.

최근 한국자원환경공사가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안에 새롭게 문을 연 '자원순환테마전시관'에서는 폐비닐·페트병·유리병·종이 등의 쓰레기가 처리를 거쳐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전시물과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해 63빌딩·예술의전당 등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제작한 '서울 상징 미니어치'와 고철·주판·전화기 등을 이용해 만든 각종 조형물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체험 교실도 진행된다. 매주 토·일요일은 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전북·광주 전남·경기·대구 경북지사도 홍보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달 중 부산 경남지사도 교육관의 문을 열어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심어 줄 예정이다.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성남시 분당구에 마련한 '캐니빌리지'는 포장 용기인 금속 캔을 소재로 한 재활용 체험관. 공원·마트·집·극장·발전소 등 마을 형태로 꾸며진 이 곳에서는 놀이와 애니메이션·그래픽을 활용해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지구 환경·캔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익힐 수 있어 어린이들이 지루해할 틈이 없다.

최근 개관 8개월 만에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고, 방학을 맞은 요즘에는 가족 관람객이 학기 중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환경 학습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 전시관은 쓰레기 산이던 난지도가 생명이 숨쉬는 공원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을 일깨우는 다양한 자료 등을 선보이고 있다.

RFID 업계  
**RFID 특허 대응 종합 가이드 구축**  
보유 기술 권리 보호 가능 기대

대내외적으로 거세지는 전자태그(RFID) 관련 특허 공세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가이드가 구축된다.

관련 업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RFID/USN협회, 다래 등이 공동참여해 국내외에 등록된 RFID 관련 특허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분류와 분석, 특허 지도(맵) 등을 작성해 관련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TRI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 특허조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한국RFID/USN협회가 지원과 협력을 담당하고 전체 특허에 대한 정보 파악과 분석은 특허법인 다래가 진행한다.

현재 국내외 등록된 총 2만1천여 건의 RFID 관련 특허를 수집했으며 이를 다시 △ 칩 △안테나 △ 태그 △ 패키징 등으로 대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중에 대분류를 다시 기술 분야별로 소분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류 작업을 완료한 이후 각 특허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해 2월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될 전망이다. 분석 작업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RFID

## 업계동정

관련 기술 개발에 앞서 특허에 대한 선행 분석이 필수적이었으나 종합적인 분석정보가 부족한 상태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외 특허에 대한 대응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보유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안포장산업(주) 창립 31주년기념 연수대회 개최 삼중양면골판지 생산 개시

신안포장산업(주)(대표이사 김일영)이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지난 달 1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퍼시픽호텔에서 노사화합 제주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특히 임직원들의 가족을 동반, 노사간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참가가족들에게도 신안포장산업의 한 가족으로서 회사에 대한 신뢰와 노사간의 벽을 허물고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일영 대표이사는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주연수를 계기로 전 사원이 하나가 돼 창립 이래 3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판지 종합포장회사로서의 노하우와 전 임직원의 벤처기업과 같은 모험심,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



▲ 신안포장산업(주) 노사화합 제주연수대회

감으로써 골판지 포장업계를 대표하는 일등회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신안포장산업은 이런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품질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최근 나무상자의 대체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중량물포장에 적합한 새로운 고강도 포장재인 삼중양면골판지를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생산을 개시, 향후 삼중양면골판지 생산량을 더욱 늘려 나가는 한편, 포장관련 종합쇼핑몰인 포장닷컴(www.pojang.com)을 국내 최대 규모의 포장종합쇼핑몰로서 시장점유율, 매출액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현재 약 9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 분양도 올해 3월내로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신안포장산업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식품·음료업계  
**로하스 개념 인기**  
포장, 디자인 등 독특한 상품 눈길

올해 식품업계 화두는 작년에 이어 안전한 먹을거리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비롯해 만두파동, 김치파동 등으로 식탁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

(Well-being)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복까지 추구하는 로하스(LOHAS) 개념으로 발전했다. 박승원 CJ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건강지향적이고 천연적인 식품소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식품 트렌드도 웰빙을 넘어 로하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저염식품을 내놓고 있고 종류도 간장, 젓갈, 생선 등 다양하다.

CJ는 새해 들어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소금 ‘백설 팬솔트’를 출시했고, 대상도 간장 된장 등 장류의 염도를 5% 낮췄다.

식품시장의 또다른 특징은 설탕을 빼는 작업. 비만과 당뇨병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체 감미료로는 자일리톨과 결정과당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단맛은 살리면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뺀 것이다. 식품시장의 또다른 키워드는 ‘편의성(Convenience)’과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간편식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식품 등의 등장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신시장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겠지만 식품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다.

청정원 마시는 홍초, 햇반, 월, 비타 500 등이 대표적인 상품. 이들 상품은 건강 컨셉트와 맞물려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소비자들은 또한 제품 용기와 포장, 디자인이 독특한 상품에 손을 내밀고 있다. ‘차에인’과 ‘워터라인생수’, ‘워터치 장류용기’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지난 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 업계동정

서 무분별하게 제조·판매돼오던 건강식품시장도 재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가 회복돼 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삼, 비타민, 클로렐라, 알로에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글루코사민에 이어 레놀렌산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를 기조로 업체들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식품업체인 CJ는 간편식에 비중을 두고 올해도 '햇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즉석반찬류인 '햇찬', 즉석국 제품의 지속적인 매출 향상도 예상하고 있다. '맛밤'도 웰빙간식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올리브유'와 '포도씨유'도 작년의 인기로 이어 지속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건강식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클로렐라에 이어 올해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감마리놀렌산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시는 식초 바람으로 '청정원 마시는 홍초'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풀무원은 올해 주력 상품으로 '풀무원 유기농 콩두부'와 콩으로 만든 건강 디저트 'SOGA 콩이랑',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가득 생라면', 그리고 오일 함량을 낮춘 '생가득 샐러드드레싱' 4가지를 뽑았다.

웰빙과 로하스가 사회적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동원F&B는 맛살의 고급화를 위해 품질을 높인 '크래시앙'과 '노블레올리브유', '노블레포도씨유' 등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면류에도 생면 바람과 함께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면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뚜기의 '컵누들'과 삼립식품의 '세참면' 등이 기대되는 상품들이다.

롯데제과는 무설탕 웰빙캔디 '애니타임'의 인기가 목캔디의 아성을 넘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는 또한 줄음 방지, 입냄새 제거, 소화기능을 돕는 껌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태제과는 해태의 대표 비스킷 '에이스'의 명성을 이어가고, 감쪽하고 예쁜 해피엔코 캐릭터 초콜릿 화이트엔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술 시장에서도 저알코올 바람이 불면서 소주의 알코올 도수 20도가 깨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산이 알코올 도수 20도 이하 소주 신제품을 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류업계 첫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 등장 올 4월 예상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한솔 CSN, 동부건설, 국보, 세방기업 등 물류업계의 최대 화두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는 첫 업체'가 올 4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을 각각 공포하면서 첫 인증 종합물류업 기업이 올 4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규칙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 영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물류(3PL)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 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 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 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평가결과 운송중심·시설중심·서비스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단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 물류정책팀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안에는 미흡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과 함께 급진적인 지원책 도입보다는 추이를 보가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점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F&B(주)  
**숨쉬는 김치파우치 개발**  
 가스흡수제 필요 없는 김치 포장재

'HACCP인증 김치', '짜지 않아 더 맛있는' 양반김치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원F&B(주)(대표이사 박인구)의 동원식품과학연구원에서 가스흡수제가 필요 없는 김치 파우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일명 '숨쉬는 파우치'로 명명된 이 포장재는 MPPM 필름(Micro-porous Polyolefin Membrane, 초미세 기공 필름)이라는 가스는 투과되고, 액체는 투과되지 않는 다공성의 미세가공필름으로 만들어졌다. '숨쉬는 파우치'가 김치 포장재로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가스흡수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기존 파우치 김치 제품 안쪽에는 가스흡수제가 부착된다. 김치의 유통 과정 중, 발효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포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무리 무해한 가스흡수제라고 해도 식품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어 소비자가 거부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수출 또한 문제였다. 현지인들이 포장재 안에 들어 있는 가스흡수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 동원식품과학연



## 업계동정

구원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에 착수, 숨쉬는 파우치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숨쉬는 파우치를 개발한 동원식품과학연구원 최원영 대리는 “고품질의 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포장기술의 개발은 김치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면서, “숨쉬는 파우치로 소비자의 안전 수호는 물론 국제식품으로써의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숨쉬는 파우치는 특허 출원 상태로, 2006년 3월부터 양반김치에 적용·생산할 계획이다.

농산물업계  
**포장 잘 된 상품 잘 팔려**  
상품가치 높이기 위한 포장 붐 일어

포장 잘 된 농산물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신선도와 위생상태도 크게 개선돼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격이 달라진다. 최근 농산물에도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 붐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은 대체로 판매대 위에 수북이 쌓아놓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골라 비닐이나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먹음직스럽고 신선하게 포장된 농산물이 부쩍 늘었을 뿐 아니라 먹기 이쉬울 정도로 감쪽하게 포장된 상품도 속속 등장하

고 있다. 예쁜 포장의 농산물 상품은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공산품 뺀치는 세련된 포장의 농산물 상품이 유통업체 매장에 자리잡는 포장 마케팅 시대가 열리고 있다.

농산물 포장 마케팅은 과일류가 선도하고 있다.

포장 과일의 경우 너무 예쁜 나머지 먹기가 아까울 정도다.

메론 등의 껍지가 달려있는 상품은 껍지를 리본으로 장식하고, 한라봉은 잎을 떼지 않고 그대로 판매해 과수원에서 금방 딴 듯한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사과·배·레몬·망고·석류 등 일정 부피가 있는 과일은 상품도 보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개별포장 상품이 주류를 이룬다.

체리·방울토마토·금귤·딸기 등 부피가 작은 과일은 하트모양의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밀봉해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선도 유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고로쇠 딸기는 나노이온주기에 고로쇠물을 혼합한 명품딸기인데, 고급스러운 나무상자에 포장해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들고 다니기 편하고 선물하기에도 좋도록 손잡이가 달린 농산물 포장상품도 인기가 높다. 꽃감·홍시·반시·사과·마늘·기능성 쌀 등은 2·3·5·7kg 등 소형 포장단위로 나누고, 상자 한쪽면을 접어 손잡이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채소류 가운데는 애호박이 단연 눈에 띈다. 소비자들이 호박 1개를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잘라 여러번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일부를 자른 뒤 재포장이 가능하도록 한쪽을 끈으로 묶어 놓았다.

나노테크놀로지 업계  
**나노테크놀로지, 유망 업종 부각**  
 제품구성과 포장에 적용

에너지 및 환경, 건강, 나노테크놀로지 분야가 향후 10년간 전세계 증시를 뜨겁게 달굴 투자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해럴드 트리뷴(IHT)이 보도했다.

첨단 미세 가공 기술인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은 끊임없이 그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갖춘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이 현재는 1백30억달러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이 산업의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노베스트스트레티직벨류어드바이저스의 헤더 랭스너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은 나노테크놀로지 기업들과 정보기업들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노베스트는 제품의 잠재력과 회사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기반으로 BASF와 제너럴일렉트릭 제조업 및 화학 관련 업체들은 물론 좀더 특화된 알테어 같은 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베스트는 또 네슬레와 크라프트 등 제품 구성과 포장에 나노테크놀로지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에 있어 나름의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룩스리서치의 매튜 노단 부사장은 연구와 상품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노테크놀로지 업체들에 주목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지만 3M과 GE 등 대형주들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주)  
**68만원 초고가 화장품 출시**  
 용기, 전통 토기 항아리 모티브

LG생활건강(주)(대표이사 차석용)이 최고급 명품 한방화장품을 출시했다. 35년근 산삼과 티벳에서 나는 천산 설련화로 만든 이 제품 한 병의 가격은 68만원으로 국내 화장품 중 최고가다.

LG생활건강은 지난 달 9일 백화점용 궁중화장품 '후'의 최고급 명품 크림 '후 환유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LG생활건강 화장품 연구소와 한의



▲ LG생활건강 68만원 초고가 화장품 출시

## 업계동정

학계가 손잡고 3년간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이다.

LG생활건강은 최고급 명품이라는 명성에 맞춰 가격적인 판매 가격과 수량도 제시했다. 60ml 크기 제품 하나에 68만원인 '후 환유고'는 연간 1만 여개만을 제작, 소수 고급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후 환유고 크림'은 어릴적 피부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용기도 전통 토기 항아리를 모티브로, 금속 공예로 만든 봉황을 더했다.

턱밑에 여의주를 끼고 날개를 활짝 피며 웅비하는 봉황은 국보 제287호인 백제 '금동대향로'에서 차용했다.

### 반도체부품업계 반도체부품 강자, 이익 쓸쓸 덕산하이메탈 고마진 솔더볼 수요 확대

BGA 패키징의 필수 재료 '솔더볼(solder ball)' 제조업체인 덕산하이메탈이 반도체, 패키징 등 전방산업의 회복세에 힘입어 확실한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10월 상장 이후 주가가 거의 배로 뛰었지만,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등 각종 투자지표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덕산 하이메탈은 일본 센주메탈, 미국 알파메탈에 이어 세계 3위 솔더볼 제조업체로, 이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솔더볼이 현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다. 반도체산업과 패키징시장이 이 회사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

반도체 패키징시장은 소형화 및 경량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리드프레임 타입에서 BGA(ball grid array) 방식으로 꾸준히 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부터 D램에서도 BGA 타입의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BGA 도입이 본격화됐다. D램 같은 범용 메모리에 BGA가 도입되면서 전체 반도체 패키징 중 BGA 타입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BGA 패키징의 필수 재료인 솔더볼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 2005년 59%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도 68%의 고성장세가 예상된다. 솔더볼의 분기 매출 성장률이 76% 수준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체와 패키징 전문의 앰코, 스테츠칩팩, ASE 등 다양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매출 안정성을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영업이익률은 2005년 35.8%에서 2006년 44.0%, 2007년에는 48.6%에 이를 전망이다. 패키징의 고집적화가 이뤄지면서 BGA 패키징에 쓰이는 솔더볼의 소형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솔더볼이 작아지면 개당 재료비는 감소하지만 제조과정의 난이도가 높아져 판가가 상승해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환경규제로 인한 무연 제품 수요 확대도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유럽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무연 솔더볼의 채용 비중이 지난해 말 60%에서 올해 말에는 1백%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 제품 ❁

선광자동밸브

1차 압력 조절밸브, 릴리프밸브 SDPV-2형

BC, GC, STS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

선광자동밸브(대표 광병규)의 릴리프 VALVE는, 중·횡 어느 조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Diaphragm 직동식으로 정밀한 작동을 보장한다.

사양에 따라 NBR, EPDM, VITON 등으로 제작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소비자가 원하는 VALVE를 제작하고 있다.

PUMP 2차측 또는 다른 2차측에 필요한 압력을 일정하게 1차측에서부터 조정하므로, 배관 또는 주요기기를 보호하고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한다. 특히, 다양한 소재(BC, GC, STS)로 제작된다.



롯데칠성음료(주)

‘홍삼꿀’ 출시

온장 판매 가능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이종원)는 건강기능성 음료인 ‘롯데 홍삼꿀’을 출시했다.

‘롯데 홍삼꿀’은 지난 2002년에 발매된 ‘롯데 홍삼’의 리뉴얼 제품이다. 주요 성분인 벌꿀의 함량을 1%에서 5%로 대폭 올리는 한편 부드러운 맛을 향상시켰으며, 180ml 신형 소병 용기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또 건강음료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안정화를 높여 온장 판매가 가능토록 개발돼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발매 초기에 온장고 지원거래선 위주로 입점에 주력하는 한편, 주 타깃 층인 회사원들의 소비가 많은 사무실 주변 거래선과 병원 등 선물용 제품 거래선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백80ml 캔 제품도 생산해 자판기 위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태제과(주)

### 키즈톨 출시

캐릭터 이용한 디자인 눈길

해태제과(주)(대표이사 윤영달)는 어린이 전용 무설탕껌 '키즈톨(Kidstol)' 을 출시했다. 키즈톨은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인증을 받아 어린이 유해성분이 없고 자일리톨, 칼슘과 비타민 9종을 함유해 치아 건강과 성장에 좋은 영양껌이다.

캐릭터가 새겨진 민트층과 칼슘, 비타민 등이 들어있는 껌층으로 나누어진 2중 구조이며, 알루미늄 캔 모양의 통에는 EBS만화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 스티커도 들어있다.



롯데제과(주)

### 베타블루 출시

편의성 위한 용기 구조 다양화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길수)가 충치와 줄음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껌 '베타블루' 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구아라나 추출물과 강력한 향의 페퍼민트가 들어 있어 줄음을 쫓아 주고, 국화추출물이 들어 있어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줄음과 싸워야 하는 학생, 운전자, 야간 근로자들을 겨냥한 이 제품은, 씹는 순간부터 목과 코 속이 시원하게 뚫려 애연가나 감기환자에게도 좋고 금연을 결심하여 마땅히 군것질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납작한 사각형태의 코팅껌이어서 먹기도 좋은 '베타블루' 는 기존의 줄음 예방 껌과 달리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용기구조 형태, 가격을 다양화 했다. 윈터치캡 용기제품은 원통형태로 윈터치로 쉽게 열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껌을 꺼내 씹을 수 있고, 일반용기 제품은 식탁과 책상 위에 놓고 씹기 좋다. 또 케이스 형태는 휴대성을 살려 작고 납작한 형태로 설계, 가방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은 형태다.



**동원F&B(주)**

**‘슈나페 2종’ 출시**  
샐러드 파우치 적용

참치캔 시장에서 7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던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원 F&B(주)(대표이사 박인구)가 참치 시장에 블루오션 제품을 내놓았다. 슈나페는 ‘부드러운 샐러드’와 ‘까나페’의 합성어이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투명 트레이 안에 고소한 맛 혹은 매콤한 맛의 참치샐러드 파우치와 5개짜리 크래커 2봉이 들어있다. 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가장 적당한 양이 스프레드 될 수 있도록 입구를 제작한 샐러드 파우치로 고급 까나페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슈나페’는 주타깃이 되는 여대생의 간식 섭취 취향을 정확히 반영해 제작된 것으로 20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가장 출출함을 달래주기 좋은 간식의 양인 샐러드 60g과 크래커 10개로 여대생의 구미에 맞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슈나페 담당BM(브랜드 매니저) 조용일과장은 “참치캔은 주로 소재류로 소비되고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타개책이 될 수 있는 블루오션 제품을 고민하다 탄생한 제품이 슈나페”라고 설명했다.



**CJ(주)**

**저염 소금 ‘백설 팬솔트’ 출시**  
가정용 용기형과 파우치형 출시

CJ(주)(대표이사 김진수)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일반 정제염 대비 40% 가량 낮은 소금대체식품 ‘백설 팬솔트’를 출시했다.

팬솔트는 자일리톨, 식물성 마아가린 베네콜과 함께 핀란드 3대 식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처럼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핀란드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헬싱키 의대가 공동 개발, 1982년부터 소금의 대체 식품으로 본격 판매하고 있다. 또한 염화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을 넣어 소금과 같은 짠맛을 내지만 인체내 과다 나트륨 섭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 소금의 염화나트륨 함량이 88% 이상이라면 팬솔트는



57%에 불과하다.

핀란드 소금 시장의 41%를 차지하는 펜솔트는 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맥도날드 등 세계 1천여개 가공식품회사도 소금을 대체해 펜솔트를 사용하고 있다.

펜솔트의 국내 수입, 유통을 맡은 CJ는 가정용 용기형과 파우치형을 내놓는 한편 자사 가공식품 제품에도 소금 대신 펜솔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J는 “2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전체 소금시장 가운데 기능성 소금 시장규모는 2백억원에 불과하지만 가공식품과 김장용 시장에도 펜솔트류가 확산된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롤치즈 · 고추롤치즈 출시**

지퍼백 포장 적용

국내 치즈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김재술)이 특별한 맛과 모양의 ‘롤치즈 · 고추롤치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에 제과 · 제빵을 위해 업소용으로만 출시됐던 롤치즈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요리 붐을 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새로 나온 것이다.

또한 아이들 간식용 요리에 어울리는 롤치즈 뿐만 아니라 최근 와인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안주 용으로서 치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와인 및 술과 어울리는 매콤한 고추맛의 고추롤치즈도 함께 선보였다.

롤치즈 · 고추롤치즈는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치즈로 그 독특한 모양만큼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요리 후에도 알갱이 모양과 원래의 맛이 그대로 보존돼 시각적으로 더욱 맛있게 보이며 씹을 때의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둘째 항상 사용한 뒤 가장 큰 문제였던 보관상의 편리함을 위해 지퍼백 포장으로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성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했다.

셋째, 치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콤한 고추맛과 부드러운 치즈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 고추롤치즈가 치



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준다.

롤치즈/고추롤치즈는 아이들 간식용으로 어른들 술안주용으로 그냥 먹어도 맛이 좋지만 빠질 수 없는 요리의 감초로서 특별한 요리와 만나게 될 때 더욱 좋다. 아이들 간식용으로 어울리는 롤치즈는 식빵을 만들 때 넣어서 롤치즈 식빵으로, 계란말이에 넣어서 롤치즈 계란말이로 아이들 입맛을 더욱 사로잡을 수 있다. 어른들 술안주 특히 와인안주로 제격인 고추롤치즈는 샐러드에 넣어 고추롤치즈 샐러드로, 오징어 떡볶이에 넣어서 롤치즈 오징어 떡볶이로 어른들의 술맛을 더욱 좋게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우유는 그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앙팡치즈', 국내 최초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유기농 맑은치즈', 국내 최초 요리용 치즈 '슈레드 피자치즈', 프리미엄 자연치즈 '팜도르' 등을 내놓아 고객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약품(주)**

**'비타업' 출시**

**유통 및 마케팅 통해 시장 공략**

기능성음료 '미에로화이바'와 '헬씨올리고'를 생산하는 현대약품(주)(대표이사 이한구) 식품사업부는 비타민 음료인 '비타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비타업'은 비타민C 70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B2(리보플라빈)와 B6(피리독신)을 보강했다.

비타업은 기존 정제형이나 과립형 제품으로 섭취해야 했던 불편함과 지나치게 신맛으로 인해 비타민 음료를 꺼리던 소비자들을 위해 비타민C 특유의 신맛을 줄이면서도 비타민C 특유의 효능을 잘살려 냈다는 평가이다.

현재 국내 비타민음료시장은 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비타업은 1백ml 병제품이며 권장소비자 가격은 5백원으로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편의점과 슈퍼 등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비타민음료시장이 비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 기능성 음료시장에서 쌓아온 유통과 마케팅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acchi社  
**Plast 2006 참가**  
 필름 압출시스템 혁신

Plast 2006 전시장 15홀에서 Macchi의 압출기술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초 이래로 필름 기계류산업의 선도 개척자로 명성을 얻으면서 역사적으로 유럽 필름 압출산업의 지대한 성장 발전을 이룩한 Macchi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밀라노 전시회를 통해 다시한

번 그 명성에 걸맞는 확고한 자리를 매김할 계획이다.

Macchi는 지난 버밍햄 전시회와 바르셀로나 전시회의 경우와 동일한 구성으로 2천4백mm폭의 완전 'Gearless' 구동 기술 시스템을 채택한 3중 공압출 라인을 선보인다. 또한 AC싱크로 모터는 감속기, 벨트 풀리 등이 없는 직구동 시스템으로 개발됐고, 직구동 드라이브는 기계적 모터의 힘이 어떤 기계적 구동요소를 필요치 않으면서 드라이브 시스템에 직접 전달되는 컴팩트한 구동 유니트이다.

플라스틱산업에서 주 적용 분야는 압출기 스크류용 구동 드라이브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타 제지



▲ Macchi社 필름 압출시스템

분야, 섬유 컨버팅, 인쇄가공 분야에 실제 적용되고 있다. 직구동 드라이브는 섬유이송 및 제품권취를 위한 신구동 시스템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전기적 샤프트 또는 보다 선호되고 있는 Gearless라고 하는 또다른 정의로 적용되는 서보 드라이브 기술은 이미 컨버팅 기계류 분야에 상당한 부분에 적용되어져 왔다.

기계구동분야에서 이들의 적용분야는 일련의 통합된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서부기술 중 특히 싱크로모타는 단지 Blown 필름 압출분야에서만 그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본 시스템의 장점은 몇 가지 주요 안전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은 원가절감 측면 또는 편리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기어박스, 폴리, 벨트가 불필요하고 ▲ 기계 조립, 오일, 벨트, 기어 손상문제를 해결 ▲ 효율성에서 뛰어난 시스템, 기계적 구동 또는 파워 손실이 없으며 ▲ 저속 모터RPM에 의한 구동 베어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 냉각팬 및 에어 휠타가 불필요하며 ▲ 저소음이다.

싱크로 모타는 액냉각방식이며 100mm 압출기 1대와 80mm 압출기 2대로 구성된 Macchi Coex-flex Size 6은 냉각장치 배관시스템과 함께 구성될 것이다. Macchi가 필름압출라인에서 전적으로 Gearless 방식을 조만간 채택할 계획이다. 아직도 고객들에게 싱크로모타의 잠재적 장점을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크기라는 제약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잇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끊임없이 쟁점화되면서 명백하게 적용이 어려운 분야는 고성능 Cast 필름 라인의 스트레치 랩분야로서 대형 유니트압출기에 거대한 크기

의 싱크로모타를 적용하는 분야인 것이다.

Macchi는 이미 다른 척도로 벤치마킹한 몇가지 다른 적용 예와 디자인 컨셉으로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됐다.

지난 해 Macchi의 주목할 만한 업적성취의 원인은 아직도 유일하게 필름 압출 분야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Macchi 사업의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초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Macchi의 기본적인 철학으로는 ▲ 운반, 설치, 가동이 편리한 싱글 플랫폼에 모든 압출기가 일련로 구성된 COEX-Flex 모듈 ▲ 모든 와인딩 모드, 써페이스, 갭 그리고 센터-써페이스에 있어서 정확한 와인딩 텐션 컨트롤을 위해 최근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갖춘 Macchi 와인더의 주력 모델인 BO PLUS ▲ 편리한 라인운전 및 운전자의 다른 작업부담을 없애는 이중개념을 가진 컴퓨터화된 CONTROLPLUS 라인이라는 통합 패키지 등이다.

Macchi는 신 개념의 IBC(내부냉각장치) 및 에어링으로 구성되고 각 Die 직격의 각 mm당 1.7/1.8kg(LDPE 기준) 범위의 토출 능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며, 생산된 필름 제품의 시각적 품질 및 매우 조밀한 두께편차를 가진 듀얼 자동 듀얼 자동 두께 조절장치와 우수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자동 표시장치들은 BLOWN 필름 압출 라인분야에서 일체화, 표준화, 생산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됐으며, Macchi사를 선도 전문 압출산업 분야의 확고한 압출설비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필름압출 기술의 혁신을 이루게 했다. 부스 : PLAST 2006 전시회 HALL 15 BOOTH C10/D09